

아동의 양육지각,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단기·종단적 접근: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를 중심으로*

김 수 정¹⁾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정 윤 경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고학년 시기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기·종단 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 245명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이다. 양육지각, 아동반추는 아동 보고로, 그리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로 초등 4학년 때와 5학년 때 1년 간격으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4학년 거부·제재양육지각은 4학년 반추 및 5학년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4, 5학년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 4학년 시기, 거부·제재양육지각은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부적 관련을 그리고 아동반추와는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5학년 거부·제재양육지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5학년 시기, 거부제재·양육지각은 학교적응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반추를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4학년 거부제재·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과 반추를 매개로, 그리고 5학년 거부제재양육지각을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양육지각이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아동 반추, 거부·제재적 양육, 학교적응, 아동 후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3937).

1)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benijeong@catholic.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는 독립적 대처와 자기조절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Losoya, Eisenberg, & Fabes, 1998)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훈련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후 청소년기나 성인기 적응에 토대가 되므로(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김수정, 곽금주, 2010b에서 재인용), 이 시기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즉 이 시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아동이 여러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사나 다른 또래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규칙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 주므로(류운석, 1996)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들어 발달 정신 병리학적 차원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학교적응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김연수, 김수정, 2020; 김진옥, 2020; 오유정, 문혁준, 2013; 장신재, 양혜원, 2007). 학교적응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은 변화가 수반되는 전이시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는 아동후기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의 시작점으로(김연수, 김수정, 2020; Garton & Morrison, 2000), 이전 아동기에서 보다 좀 더 다양한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인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학교적응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전이시기 학교적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가 시작되는 초등 4학년(만 10세)과 5학년(만 11세) 시기는 인지 발달적으로 보면 구체적 조작기(만 7세~11세)가 절정을 이루면서 형식적 조작기(만 11세, 12세~)가 시작되는 시점으로(Shaffer, 2005), 인지 발달적으로 전이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런 인지 발달적 전이 시기에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이런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과는 어떤 연관성을 보일 것인가를 종단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발달심리학적으로 의미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즉 인지 발달적 전이 시기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4학년과 초등 5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들 간 연계성을 단기·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적 특징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포함한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으로 제안되어 왔다(김수정, 곽금주 2010a; 김수정, 곽금주, 2013a; Chang & Yang, 2007; Kim et al., 2003). 부정적 양육과 아동적응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지나친 관여 및 통제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을 보였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초등 1학년 및 초등 고학년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Rapee, 1997).

Kim 등의 연구(2003)에서도 적대적이고 거

부적인 양육 특징이 아동의 부적응과 관련되었으며, 과잉·통제적인 양육도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을 보였다(Keil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또 다른 종단연구(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에서도 적대적 양육방식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 높은 수준의 부적응적 특성과 관련을 보였는데 통제적인 양육행동일수록 자녀의 부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Aunola & Nurmi, 2005).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김수정, 광금주, 2010a)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부정적 양육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입학 후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초등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수정 등, 2018)에서도 거부·제재적 양육이 학교적응과 부정적 관련을 보였고,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신정희,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옥의 연구(2020)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수행 지연과 관련되었다(하지현, 2019). 이와 같이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적대적, 통제적 그리고 거부·제재적 양육이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과 부적으로 관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반추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Spasojevic & Alloy, 2002). 반추적 반응은 아동이 고통스런 증세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으로 정의된다(Nolen-Hoeksema, Wisco, & Lyubomirsky, 2008). 즉 비난받은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반응이다. 최근 연구들(Hartley et al., 2014; Wolkenstein,

Zwick, Hautzinger, & Joormann, 2014)에서는 반추가 여러 심리적 장애 등의 부적응과 관련을 보이면서 우울 및 사회불안을 포함하여 아동(Rhoades, 2008) 및 청소년기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다는 사실(Nolen-Hoeksema, Stice, Wade, & Bohon, 2007)을 보고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Kopp, 1982; Nolen-Hoeksema, 1998)에 의하면 아동들이 환경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할 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 전략을 학습할 수 없었을 때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문제 해결을 긍정적 방식으로 학습할 수 없었을 때나, 부정적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응 전략을 학습하지 못할 때 수동적인 반추적 대처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Kopp, 1982; 김수정, 정윤경, 2019에서 재인용). Higgins와 Silberman(1998)은 거부적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대처 전략을 학습하고 활용할 기회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추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Spasojevic와 Alloy(2002)에 의하면 아동기 때 강도 높은 수준의 통제적 양육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연구(Hilt, Armstrong, & Essex, 2012)에서도 높은 수준의 통제적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청소년기 때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추와 부정적 양육 간 관련성에 대한 국내연구(김수정, 정윤경, 2019)에서는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 반추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지현의 연구(2019)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반추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

이 아동의 반추적 반응 양식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반추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을 보이며, 우울 및 사회불안 등의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을 보였다(Hartley et al., 2014; Nolen-Hoeksema et al., 2007; Wolkenstein et al., 2014). 김수정 등의 연구(2018)에서는 반추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추가 아동의 사회불안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적 관련을 보였다. 하지현의 연구(2019)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보고할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써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반추의 빈번한 사용은 학업지연행동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반추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을 보인 Hartley 등의 연구(2014)와 Nolen-Hoeksema 등의 연구(2007)에 근거하여 아마도 반추가 학교적응과도 어떤 관련을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반추가 학교적응 및 학업지연행동과 관련을 보인 국내연구들(김수정 등, 2018; 하지현, 2019)에 근거하여 반추가 학교적응과 어떤 관련을 보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주된 변인 중 하나인 거부·제재적 양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육과 관련을 보이는 아동 반추를 제안하여 학교적응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을 초등 고학년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아직 종단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양육에 대한 아동 지각과 반추를 학교적응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동후기에

서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동안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탐색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보고로 반추와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을 측정하였다. Osborne과 Fincham(1996)에 의하면 양육행동이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Harold, Fincham, & Osborne, 1997).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제를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아동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생활, 수업적응 및 또래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적응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과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을 각각 1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어떤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통해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볼 것이다. 거부·제재 양육,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 및 연계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선 부정적 양육이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인 선행연구들(김수정, 박금주 2010a; 김수정 등, 2018; 김진옥, 2020; 신정희, 2010; 하지현, 2019)에 근거하여 4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거부·제재양육이 4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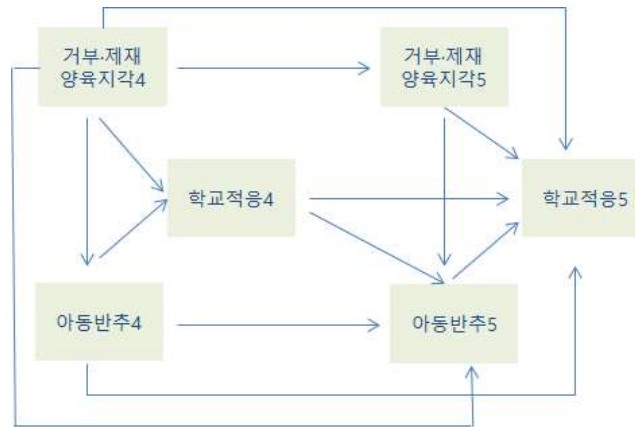


그림 1.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모형

년 학교적응에 관련을 보이면서 5학년 학교적응에도 그리고 5학년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거부·제재 양육 및 통제적 양육이 자녀 반추에 정적 관련을 보인 선행연구들(김수정, 정윤경, 2019; 하지현, 2019; Hilt et al., 2012; Spasojevic & Alloy, 2002)에 근거하여 4학년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4학년 아동 반추와 관련을 보이면서 5학년 아동 반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반추가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정적응과 관련되며(Nolen-Hoeksema et al., 2007; Rhoades, 2008), 학교적응과 부정적 관련을 보인 연구들(김수정 등, 2018; 하지현, 2019)에 근거하여 4학년 반추는 4학년 학교적응에 관련되면서 5학년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5학년 반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하였다. 마지막으로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학교적응 및 반추와 관련을 보일 것이며, 5학년 반추도 5학년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4, 5학년 학교적응 변인들 간 관련성 및 연계성을 알아볼 것이다. 이런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련되는 변인들 간 관련성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를 제안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세부적 매개 경로를 단기적으로나마 파악하여 이후 청소년기 및 청년기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초등 4, 5학년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에는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등 4학년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어떠한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통해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 내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만 11세) 293명들로, 4학년 때 본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한 후, 교장 선생님 및 담임교사들의 허락 하에 진행되었다. 우선 각 아동의 가정에 연구관련 설명서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보낸 후, 참여의사를 밝힌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아동 반추 설문지는 아동들의 보고에 의해, 그리고 학교적응 설문지는 아동들의 각 담임교사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설문지에 참여한 293명의 아동 중, 4학년 시절인 1차 설문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일부의 특수아동(지적 장애)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등 48명을 제외한 총 245명에 대한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중, 아동의 평균 연령은 남아가 11.54세($SD = 0.29$) 여아가 11.48세($SD = 0.30$)이며, 부모의 평균연령은 어머니가 41.37세($SD = 3.29$), 아버지가 43.70세($SD = 3.74$)이다. 그 외 특징에 대해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은 김수정 등(201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문정(2003)이 수정하여 보완한 척도 중 일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씀을 자주 하신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초등 4학년), .86(초등 5학년)이다.

반추

아동의 반추는 김수정과 정윤경의 연구

표 1.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징

		변인	빈도(%)
아동	성별	남아	109명(44.5%)
		여아	136명(55.5%)
형제순위		첫째	44.6%
		둘째	10.8%
		막내	28.7%
		외동아	15.8%
경제수준		매우 잘 산다	71명(29.5%)
		잘사는 편이다	98명(40.7%)
		보통수준이다	66명(27.4%)
		어렵다	6명(2.5%)

(2019)에서 사용한 반추적 반응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김진영(2000)이 우울한 기분
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
(RDQ)로, 반추적 반응, 반성적 반응, 전환적
반응 등의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적 반응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예: ‘나의 부족한 점들
을 계속해서 마음에 떠 올리게 된다.’)을 사
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선행연구에서 반추의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93(초등 4학년), .94(초등 5학
년)이다.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김용래(2000)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맞도록 이점순(2006)이 수정한 척도로 총 5개
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환경적응 영역을 제외한 4개의 하위영역
인 24문항(예: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
서를 지키고 있다.’)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
역은 교사적응, 수업적응, 또래적응, 학교생활
적응이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교사
적응이 .90, 수업적응이 .90, 또래적응이 .91, 학
교생활적응이 .90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5이
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다
음과 같다. 교사적응의 신뢰도는 .78(초등 4학
년), .81(초등 5학년), 수업적응의 신뢰도는 .87
(초등 4학년), .90(초등 5학년),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는 .85(초등 4학년), .88(초등 5학년), 그
리고 또래적응의 신뢰도는 .76(초등 4학년),
.78(초등 5학년)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
수는 .93(초등 4학년), .93 (초등5학년)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초등 4학년 때, 1차 연구에 참여
하였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1년이 지난 후인 5
학년 때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1차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경기도 내 수도권 신
도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만 10
세)들이다. 2차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6개월 전
에 1차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1차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구두로 학교
장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에게 설명한 후, 차후
에 진행될 2차 조사 연구과정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 이후 설문 조사 시기 일정을 협의하
기 위해 또 다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2차
조사연구의 진행시기에 대한 협의 후, 설문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초등 5학년 아동들의 가
정에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보낸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아동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가 시작되기 2주 전, 초등학교를 방문하
여 아동의 각 담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구
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1차 연구
결과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아동에게 설문을 진행할 때의 주의 점
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할 때의 교사들의
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담임선
생님들은 각 학급에서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이후 연구자가 학교를 재방문하
여 직접 회수하였다. 거부·제재양육방식지각,
반추는 아동들의 보고로, 그리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설
문지에 참여한 아동은 총 293명이다. 이 중, 1
차 설문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지적 장

에 진단을 받은 일부 특수아동들 및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아동들의 설문지 48개를 제외한 총 245명에 대한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과정으로 각 변인들의 빈도, 신뢰도 계수, 평균, 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연구모형을 검증에 위한 경로 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기초통계 분석을 위해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경로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로의 직·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학교적응 간의 관계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을 간략히 살펴보면, 초등 4학년 거부제재양육 지각은 $p < .001$ 수준에서 초등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정적 상관($r = .55$)을 보였고, 4학년 반추($r = .48$, $p < .001$) 및 5학년 반추($r = .29$, $p < .001$)와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4학년 학교적응과는 $p < .001$ 수준에서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으며($r = -.27$), 5학년 학교적응과는 $p < .01$ 수준에서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다($r = -.19$).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아동 반추와 정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상관을 보였으며($r = .37$), 5학년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학년 아동 반추는 5학년 반추와 정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상관을 나타냈으며($r = .32$), 4학년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r = -.19$, $p < .01$)을 보였으나, 5학년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5학년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r = -.20$, $p < .001$)을 보였으며, 4학년 학교적응은 5학년 학교적응과 $p <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1$). 이 외의 변인들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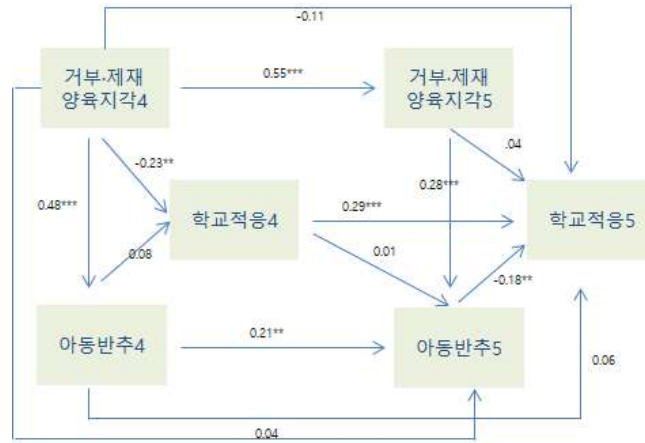
2.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2) = 2.37$ ($p = .306$), TLI = .989, CFI = .998, RMSEA = .0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LI, CFI, 그리고 RMSEA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 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김수정, 박금주, 2013b, 재인용). 4, 5학년 경,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가 4, 5학년 학교적응에 주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에

표 2. 변수들 하위범주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N = 245)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거부제재양육4														
2. 거부제재양육5	.55***													
3. 반추4	.48***	.33***												
4. 반추5	.29***	.37***	.32***											
5. 학교적응4	-.27***	-.12**	-.19**	-.07										
6. 교사적응4	-.16*	-.05	-.10	-.01	.80***									
7. 수업적응4	-.23***	-.13*	-.19**	-.07	.87***	.58***								
8. 또래적응4	-.24***	-.15*	-.16*	-.09	.82***	.62***	.53***							
9. 학교생활적응4	-.26***	-.07	-.19**	-.07	.87***	.53***	.78***	.60***						
10. 학교적응5	-.19**	-.10	-.09	-.20**	.31***	.18*	.34***	.25***	.26***					
11. 교사적응5	-.06	-.04	.01	-.15*	.18**	.16*	.18**	.15*	.11	.84***				
12. 수업적응5	-.24***	-.07	-.13*	-.17***	.33***	.17*	.43***	.20***	.29***	.85***	.54***			
13. 또래적응5	-.10	-.16*	-.08	-.18**	.25***	.15*	.22***	.26***	.20***	.83***	.72***	.51***		
14. 학교생활적응5	-.22***	-.07	-.09	-.17***	.29***	.14*	.30***	.23***	.29***	.90***	.68***	.79***	.64***	
평균	1.63	1.67	1.91	2.19	4.09	4.27	3.90	3.98	4.21	4.16	4.292	3.91	4.14	4.30
표준편차	0.62	0.61	0.88	0.93	0.64	0.68	0.84	0.77	0.75	0.63	0.67	0.87	0.75	0.66
최소값	1.00	1.00	1.00	1.00	2.25	1.50	1.17	1.50	1.67	2.42	2.17	1.17	2.00	1.67
최대값	5.00	4.3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p < .05$. ** $p < .01$. *** $p < .001$.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 $p < .01$. *** $p < .001$.

그림 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경로모형

대한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었듯이,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개의 경로들을 살펴보면,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4학년 반추와는 정적 관련($\beta = .48$, $p < .001$)을 보였으나, 4학년 학교적응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beta = -.23$, $p < .01$). 그리고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beta = .55$, $p < .001$)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5학년 학교적응($\beta = -.11$)과 5학년 반추($\beta = .04$)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4학년 반추와 관련하여 3개의 직접적 경로가 분석되었다. 4학년 반추는 5학년 반추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beta = .21$, $p < .01$), 4학년 및 5학년 학교적응과는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4학년 학교적응은 5학년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beta = .29$, $p <$

.001), 5학년 반추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5학년 반추에 정적인 관련을 보였으나($\beta = .28$, $p < .001$), 5학년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며($\beta = .04$), 5학년 반추는 5학년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beta = -.18$, $p < .01$).

학교적응에 미치는 각 변인들 간 직·간접 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5,000회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시 각 효과의 추정치의 95%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의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의미하게 해석한다(Preacher & Hayes, 2008). 표 4에는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4학년,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로 효과를 제시하였다. 4학년에 지각된 거부·제재양육이 4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I [-.38 ~

표 3.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경로분석

경로	<i>B</i>	β	<i>SE</i>	<i>t</i>	<i>p</i>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27	-.23	.08	-3.27**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68	.48	.08	8.47***	<.001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54	.55	.05	10.27***	<.0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5	.06	.04	.13	.54	.593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5	-.11	-.11	.08	-1.35	.178
반추4 → 학교적응4	-.06	-.08	.05	-1.15	.253
반추4 → 반추5	.22	.21	.08	3.17**	.002
반추4 → 학교적응5	.04	.06	.05	.87	.385
학교적응4 → 반추5	.02	.01	.09	.21	.837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28	.29	.06	4.57***	<.0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43	.28	.28	4.03***	<.001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4	.04	.08	.53	.594
반추5 → 학교적응5	-.12	-.18	.05	-2.67**	.008

** $p < .01$, *** $p < .001$.

표 4.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인 효과

경로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전체효과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24* [-.38, ~ -.09]	-.04 [-.11, ~ .03]	-.28* [-.40, ~ -.15]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5	-.11 [-.26, ~ .09]	-.08 [-.22, ~ .04]	-.19* [-.31, ~ -.05]

* $p < .05$.

-.09]). 즉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5학년 학교적응에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효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표 4 참조). 이는 4학년 거부·제재 양

육지각이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련 되는 다양한 간접 경로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경로들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이 있는데, 총 간접효과값은 모든 경우 경로들의 간접효과 값이 합산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표 4에서처럼,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간

표 5. 4, 5학년 거부제재양육, 반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 간접 효과

경로	간접효과
	[bootstrapping CI 95%]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	[-.11, ~ .03]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13, ~ -.03]*
거부제재양육4 → 학교적응4 → 반추5 → 학교적응5	[-.01, ~ .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5	[-.04, ~ .1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4, ~ .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학교적응4 → 반추5 → 학교적응5	[-.00, ~ .00]
거부제재양육4 →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5, ~ -.01]*
거부제재양육4 → 반추5 → 학교적응5	[-.04, ~ .02]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학교적응5	[-.06, ~ .11]
거부제재양육4 →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06, ~ -.01]*
반추4 → 학교적응4 → 학교적응5	[-.05, ~ .00]
반추4 → 학교적응4 → 반추5 → 학교적응5	[-.00, ~ .00]
반추4 → 반추5 → 학교적응5	[-.06, ~ -.01]*
거부제재양육5 → 반추5 → 학교적응5	[-.12, ~ -.00]*

* $p < .05$.

접 경로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효과에서는 유의미한 값을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유의미한 간접적인 경로들을 살펴보기 위해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효과를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는 4학년과 5학년 거부·제재 양육 지각 및 아동반추가 4학년과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세부 효과들을 제시하여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변인들 간 간접적인 매개 경로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초등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간접적인 경로들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유의미한

세부적 경로 효과를 보였다.

첫 번째 유의미한 경로를 보면, 초등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초등 4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I[-.13, ~ -.03]). 즉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4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의미한 경로로,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초등 4학년 반추와 5학년 반추를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I[-.05, ~ -.01]). 이는 초등 4학년 시기 어머니

니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반추적 사고는 5학년 시기에도 반추적 사고를 더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경로를 보면,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5학년 아동 반추를 연속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I[-.06, ~ -.01]). 즉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으로 양육을 지각한 아동들은 5학년 시기에도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며, 이러한 양육지각은 5학년 아동들의 반추를 증가시키고, 이런 반추가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서 보면 진한 글씨체로 표시된 경로들이 5학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세부 매개 경로들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에 있는 초등 5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거부·제재적 양육 지각과 아동반추가 학교적응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연계성을 보이는가를 단기·중단적으로 알아보았다. 즉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분석하여 학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고, 초등 고학년 시기 동안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 세부 경로를 탐색하여 좀 더 심도있게 학교적응을 살펴보았다.

초등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에 따라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의 경우, 거부·제재양육지각은 3개의 경로를 통해 유의미한 관련성 및 연계성을 보였다. 우선 4학년 거부·제재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반추와는 정적 관련을 나타냈고 5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지각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학교적응에 부적 관련을 보인 연구들(김수정, 광금주, 2010a; 김수정 등, 2018; 김진옥, 2020; 신정희, 2010; Aunola, & Nurmi, 2005)과 심리적으로 통제적 양육이 학업수행지연과 정적 관련을 보인 하지현의 연구(2019)와도 일치되는 맥락이며, 통제적,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반추와 정적 관련을 보인 연구들(김수정, 정윤경, 2019; 하지현, 2019; Hilt et al., 2012; Spasojevic & Alloy, 2002)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4학년 시기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5학년 시기에도 부정적으로 지각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시기 부모 양육에 대한 아동 지각이 이후 5학년 시기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초등 4학년인 만 10세 시기와 5학년 시기인 만 11세 시기는 인지 발달적으로 구체적 조작기가 절정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 두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인지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4학년 때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초등

5학년 시기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4학년 반추는 4, 5학년 학교적응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5학년 반추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4학년 시기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아동들은 이후 5학년에 가서도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추적 사고가 일단 시작되면 멈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Nolen-Hoeksema et al., 2007; 김수정, 정윤경, 2019에서 재인용)는 제안과 일치되는 맥락이다. 따라서 청소년시기로의 이행시기에 반추 발달에 대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 반추를 발달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수 있다.

초등 5학년의 경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5학년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은 학교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반추에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고, 이런 반추가 학교적응과 부적 관련을 보였다. 즉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반추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4학년 시기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4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을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요약하면 거부·제재적 양육지각이 4학년과 5학년 각 시기마다 아동반추와는 직접적인 정적 관련을 보였지만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4학년 양육지각은 4학년 학교적응과 직접적인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으나, 5학년 양육지각은 반추를 매개로 5학년 학교적응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연구대상들의 발

달수준 및 발달 상태에 따라 같은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가령, 4학년 시기 학교적응은 부모의 양육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반해, 5학년 시기 학교적응은 아동 반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아마도 좀 더 인지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5학년 시기 아동들은 4학년 시기 아동들 보다 반추가 더 체계화되면서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초등 5학년 시기 아동들은 이전 시기의 아동들보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만, 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사고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좀 더 회의적 성향을 보일 수 있고, 이런 성향이 집중력과 주의력을 요구하는 학업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특징은 아동 및 청소년 발달적 결과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이런 영향력에서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가는 다각적인 여러 종단 연구를 통해 살펴볼 문제이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정적 양육특징에 대한 아동지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초등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발달되는 시기에 변화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이되는 시점에서 아동의 심리적 특성들이 인지적 발달로 인해 더 구체적으로 확립되면서 양육적 요인보다는 양육적 요인으로 형성된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초등 4,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경로효과를 분석하여 초등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유의미한 세부적인 3가지 경로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유의미한 경로로는 초등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초등 4학년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4학년 시기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4학년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4학년 학교적응이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시기 학교적응의 예측 요인 중 하나로 양육적 특징에 대한 아동 지각을 그리고 5학년 학교적응의 예측요인 중 하나로 4학년 학교적응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의미한 경로로,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초등 4학년 반추와 5학년 반추를 연속적으로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초등 4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반추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반추적 사고는 5학년 시기에도 반추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5학년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보고할수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써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지연행동의 증가와 연관을 보인 하지현의 연구(2019)와 일치되는 맥락이다.

또한 아동기 시절, 강도 높은 통제적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이후 청소년기나 대학 시기에 반추를 더 많이 했다는 연구들(Hilt et al., 2007; Spasojevic & Alloy, 2002)과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 반추와 정적 관련성을 보인 연구(김수정, 정윤경, 2019)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 반추에 영향을 주고 이런 반추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양육과 아동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로를 보면, 4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이 5학년 거부·제재 양육지각과 5학년 아동반추를 연속 매개하여 초등 5학년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학년 시기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은 5학년 시기에도 양육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며, 이러한 양육지각이 5학년 아동들의 반추를 증가시키면서 학교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초등 4학년 시기 양육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지각이 이후 5학년 시기 양육지각과 아동반추에 영향을 주면서 학교적응과 연계되어진다고 제안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등 4학년 시기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이 4학년 학교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보이면서 또 다른 변인들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5학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년에 따라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 4학년 시기 양육

에 대한 아동지각이 초등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증가하면서 아동 반추가 학교적응과 직접적 관련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의 전이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시기 학교적응을 단기·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 양육에 대한 아동지각, 반추, 그리고 학교적응 간 연계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탐색이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약 3년 간 학교적응에서 변인 간 관련성 및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년에 따라 변인 간 발달적 변화와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학교적응 변화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심층적으로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아동반추와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반추를 좀 더 광범위하게 측정하여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아동 반추와 학교적응 간 연계성을 탐색하고, 연령에 따른 반추에서의 변화와 학교적응 변화 간 연계성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 학

교적응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 발달적으로 전이시기 동안 반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발달적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변화와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으로 반추를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로의 전이 시기 및 이후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응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응을 예측해 주는 심리적 특성 중 하나로 반추가 제안됨으로써 상담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곽금주 (2010a).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수정, 곽금주 (2010b).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변인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수정, 곽금주 (2013a).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지: 발달, 26(2), 1-17.
- 김수정, 곽금주 (2013b). 3세 아동의 가정환경 자극과 발달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41-57.
- 김수정, 정윤경 (2019). 아동기 반추에 대한 탐색: 부모갈등, 양육방식, 사회불안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2), 59-76.
<http://doi.org/10.15284/kjhd.2019.26.2.59>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1-21.
<http://doi.org/10.35574/KJDP.2018.12.31.4.21>
- 김연수, 김수정 (2020).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융복합학회 논문지*, 11(2), 261-269.
<http://doi.org/10.15207/JKCS.2020.11.2.261>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옥 (2020).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시간전망과 자율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운석 (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유정, 문혁준 (2013).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동의 인터넷 몰입정도, 탄력성,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2(6), 559-569.
- 이점순 (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하지현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반추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http://doi.org/10.1111/j.1467-8624.2005.00840.x-i1>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http://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39.x>
- Chang, C. J., & Yang, H. W.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2), 5-29.
- Garton, M., & Morrison, I. (2000). Concluding comments. Transfer and transition: The next step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4), 443-449.
[http://doi.org/10.1016/S0883-0355\(00\)00027-6](http://doi.org/10.1016/S0883-0355(00)00027-6)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http://doi.org/10.1037/0012-1649.33.2.333>
- Hartley, S., Haddock, G., Vasconcelos e Sa, D., Emsley, R., & Barrowclough, C. (2014).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worry and rumination in psychosis. *Psychological Medicine*, 44(8), 1605-1614.
<http://doi.org/10.1017/S0033291713002080>
- Higgins, E. T., & Silberman, I. (1998). Development of regulatory focus: Promotion and prevention as ways of living.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pp. 78-11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doi.org/10.1017/CBO9780511527869.005>
- Hilt, L. M., Armstrong, J. M., & Essex, M. J. (2012). Early family context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 ruminative style: Moderation by temperament. *Cognition and Emotion*, 26(5), 916-926.
<http://doi.org/10.1080/02699931.2011.621932>
- Keily, M. K., Lofthouse, N.,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267-283.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71-583.
<http://doi.org/10.1037/0893-3200.17.4.57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http://doi.org/10.1037/0012-1649.18.2.199>
- Losoya, S., Eisenberg, N., & Fabes, R. (1998). Developmental issues in the study of co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2), 287-313.
- Nolen-Hoeksema, S. (1998).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ion. In J. Heckhausen & C. S.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doi.org/10.1017/CBO9780511527869.011>

- Nolen-Hoeksema, S., Stice, E., Wade, E., & Bohon, C. (2007).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rumination and bulimic, substance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98-207.
<http://doi.org/10.1037/0021-843X.116.1.198>
- Nolen-Hoeksema, S., Wisco, B., & Lyubomirsky, S.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5), 400-424.
<http://doi.org/10.1111%2Fj.1745-6924.2008.00088.x>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al-child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1), 48-7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http://doi.org/10.3758/BRM.40.3.879>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1), 47-67.
[http://doi.org/10.1016/S0272-7358\(96\)00040-2](http://doi.org/10.1016/S0272-7358(96)00040-2)
- Rhoades, K. A. (2008).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s with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6), 1942-1956.
<http://doi.org/10.1111/j.1467-8624.2008.01235.x>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1), 36-43.
<http://doi.org/10.1097/00004583-200101000-00014>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 발간일, 1999)
- Spasojevic, J., & Alloy, L. B. (2002). Who becomes a depressive ruminator?: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4), 405-419.
<http://doi.org/10.1891/088983902780935713>
- Wolkenstein, L., Zwick, J. C., Hautzinger, M., & Joormann, J. (2014).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euthymic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160*, 92-97.
<http://doi.org/10.1016/j.jad.2013.12.022>

1 차원고접수 : 2021. 04. 06.

수정원고접수 : 2021. 05. 16.

최종게재결정 : 2021. 06. 27.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n the Relation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Ru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Kim, Sucheung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Jeong, Yoonkyung

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resent investigates the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ru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childhood. 245 students and their school teacher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these variables when they are fourth and fifth grader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rumination both at the 4th and 5th year and negatively related to their school adjustment. The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perception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 direct effect on their rumination and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and is related to their perception in parenting at the 5th year.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 the 5th year has an effe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being mediated by their rumination but has no direct effe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perception in parenting at the 4th year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ir school adjustment at the 5th year by being mediated by school adjustment at the 4th year, rumination at the 4th and 5th year, and the perception in parenting at the 5th year.

Keywords: children's rumination, rejection and control in parenting, school adjustment, late childhood